

도쿄올림픽 향해 다시 뛰는 태극전사

개막일 맞춘 신체 시계... 훈련 열기 '후끈' 수영 황선우·야구 구창모는 연기를 기회로

도쿄올림픽만 바라보며 4년을 기다린 선수들에게 2020년은 몹시 잔인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1월 말부터 7월 개막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고, 3월 25일 '1년 연기' 소식이 들렸다. 허탈했지만, 선수들은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정해진 도쿄올림픽 개막일은 올해 7월 23일로 신체 시계를 맞추고, 도쿄를 향해 안테나를 세웠다. 코로나19가 만든 긴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은 희망을 품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11월부터 문을 열었고, 종목별로 훈련장을 섭외해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도쿄올림픽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사격 종목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황제' 진종오(42·서울시청)는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가 난 뒤 충을 내려놨다. 국내 대회 일정도 불확실했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선발전을 통과할 수 있게 실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2008년 베이징부터 2016년 리우까지 3차례 올림픽에서 금빛 총성을 올린 베테랑사수에게도 '코로나19 시대'는 낯설다. 레슬링 그레이코로만형 66kg급 간판 류한수(33·삼성생명)도 훈련에 열중하며 2020년을 건넜다. 그는 "일단 도쿄올림픽이 2021년 여름에 열린다고 생각하고 훈련해왔다"며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2022

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곧바로 열리기 때문에 잡념을 버리고 훈련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선수들도 '비대면 훈련'으로 돌구를 찾았다. 도쿄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후보인 남자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25·성남시청) 등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이 문을 닫았을 땐 각자 소속팀에서 생활하며 대표팀에서 주어지는 비대면 훈련을 소화했다. 8월부터 국내대회가 재개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한 선수들은 지난달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도쿄를 향한 담금질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펜싱 외에도 '대면 훈련'이 어려운 여러 종목에서 코칭스태프가 '훈련 과제'를 내주고, 온라인 등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비대면 훈련'을 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선수도 있다. 한국 수영의 새 희망으로 떠오른 황

선우(18·서울체고)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도약대로 삼았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황선우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황선우는 지난해 11월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박태환이 가지고 있던 남자 자유형 100m 한국기록을 48초25로 새로 썼다. 자유형 200m에서는 세계주니어신기록(1분45초92)을 수립했다. 두 종목에서 모두 도쿄올림픽 기준기록도 넘어섰다. 황선우는 불과 2년여 사이에 자유형 200m에서는 6초 넘게, 자유형 100m에서는 3초 이상 개인기록을 단축하는 등 무섭게 성장 중이다. 구창모(24·NC 다이노스)도 2020년 한국 야구 좌완 에이스로 부상하며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키웠다. 구창모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번리와 맨체스터Utd(이하 맨유)의 경기에서 맨유 소속 마셜이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8년 만에 단독선두 나서

2020-2021 프리미어리그 3연승 11경기 무패행진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8년 만에 프리미어리그(EPL)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맨유는 13일(한국시간) 영국 터프무어에서 열린 번리와 2020-2021 EPL 1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폴 포그바의 결승 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리버풀(승점 33)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던 맨유는 이날 승리로 승점 36을 쌓아 선두를 차지했다. 최근 3연승을 포함해 11경기 무패(9승 2무) 행진도 이어갔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정

규리그 17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맨유가 선두를 달리는 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팀을 이끌던 2012-2013시즌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맨유는 전반 36분 루크 쇼의 크로스를 해리 매카이어가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으나,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매카이어의 파울이 지적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반 45분에는 앙토니 마르시알의 중거리 슈팅이 번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쳤다. 후반 공세를 이어가던 맨유는 결국 상대 골문을 열여 쫓았다. 후반 26분 마커스 래시퍼드가 오른 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포그바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결승 골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대한항공 결정적 한 방 없네"

외국인 주포 부재로 고전

짧은 기간에 자주 장거리 비행을 한 탓인지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엔진이 과부하가 걸렸다. 대한항공은 12일 우리카드에 세트스코어 2-3으로 졌다. 4라운드에서만 세 번째로 5세트 경기를 치렀고, 최근 플세트 경기 4연패를 당했다. 무릎 통증으로 요스바니에게 배턴을 넘기고 대한항공과 결별한 안드레스 비에나는 지난해 11월 28일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 마지막으로 출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외국인 주포 없이 11경기를 치렀다. 이 기간 성적은 7승 4패로 나쁘지 않다. 도종 거포 임동혁이 성장해 라이트를 꿰차고 전력 손실을 크게 줄였다. 다만 대한항공은 확실한 결정력을 지닌 이방인 공격수가 없어 매 경기 고전했다. 5세트 경기만 7번을 치렀고, 3승 4패로 밀리는 장사를 치렀다. 외국인 선수만 있었다면 2시간 미만의 '단거리 비행'으로 3, 4세트만 치르고 승점 3점을 쉽게 챙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5세트까지 3시간 가까운 열



수비하는 카메론 노리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델레비치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세바스찬 코르다(119위, 미국)와 카메론 노리(74위, 영국)의 ATP투어 준결승 경기에서 카메론 노리가 수비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코르다가 2-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투를 벌여 승점 3 대신 2나 1을 겨우 챙기는 일이 반복됐다. 대한항공은 비에나 없이 치른 7번의 5세트 경기 중 세트스코어 2-0 또는 2-1로 앞서다가 3번을 이겼고, 1번 역전패를 당했다.

0-2 또는 1-2로 끌려가던 경기에선 모두 마지막 세트에서 무릎을 꿇었다. 경험과 막판 승부처에서의 범실이 승패를 갈랐다. 2위 KB손해보험과 3위 OK금융그룹 역시 주춤한 탓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선두 수성에 위기를 맞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맞이하는 15일 KB손보, 22일 OK금융그룹과의 일전은 1위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1 마스터스 골프대회 관중 일부 허용

'명인 열전' 마스터스 골프 올해 대회에는 관중 일부 입장이 허용된다. 대회를 개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13일(한국시간) "올해 4월 8일 개막하는 제8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는 제한된 수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4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11월에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다. 리들리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기준은 2020년 11월에 열린 대회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4월에는 일부 관중을 초대할 가운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관중 입장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입장권 소지자 모두를 초대하지 못하게 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올해 대회에 초대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2022년 더 나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서는 더스틴 존슨(미국)이 우승했고, 임성재(23)는 아시아 극적 선수 최초로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돋움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솔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버림피면 죽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앙코르 카이로스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볼세 2020 14:45 드리돌라 영어교과 10:10 좋은 아침 16: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땀 땀땀 땀땀 9:40 유디친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2:10 비즈스 리뷰 플러스 14:45 드리돌라 영어교과 15:45 레인보우 루비 16: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땀땀 땀땀 땀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더유 잇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더유 잇 13: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14: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15:00 꼭 잡아 15:30 열린채널 16:00 시사간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강극장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문화상 위키 2 15:30 TV 유디친 16:00 누가 뭐래도(재) 17:00 도둑TV 2 17:15 캐시 티라노이드 17:30 농민 에는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뽀뽀뽀 친구구 스페셜 13:20 푸리가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선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더유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날아라 개천용(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유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게 알짜배기(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에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중음악 12:05 천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중점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팀 21:35 라디오간단 22:05 백영준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밤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신년기획 다인 사이트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옛 비바리 21:30 버림피면 죽는다 22:10 버림피면 죽는다 22:40 말안 빌리지 1부 23:20 말안 빌리지 2부 23: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더유플러스 1부 21:50 더유플러스 2부 22:20 사색의 중점체 스미다 23:2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스페셜	18:50 클리! NOW 제주 스페셜 19:20 행복충전 해피타임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0:40 맛있는 광장 1부 21:35 맛있는 광장 2부 22:05 맛있는 광장 3부 22:35 어쩌다 마주친 그대 1부 23:15 어쩌다 마주친 그대 2부 23:50 접수 무비월드 스페셜	7:00 KCTV 뉴스 9:30 볼록체인 in 제주 10:30 스타기업을 만나다 12:30 제주특산품 소개 13:10 공공예술지원 프로젝트 14:00 해리의 양장점 16:10 UH-D 특선 17:10 볼록체인 in 제주 18:10 공공예술지원 프로젝트 19:00 해리의 양장점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組) 지역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재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부족함을 한탄한다. 48년 자녀 또는 부하직원에 대한 회소심 있다. 60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구설이 따르고 동료의 미움을 사게된다. 연행 조심. 72년 부업 또는 취업을 조정을 맞추고 무슨 일든 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84년 학문이나 국가자격증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37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고, 어려운 일도 무난히 해결된다. 49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61년 문서운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73년 직업업은 활동이 분주하다. 85년 이성교제 시 연애가 따르니 조심하라.

38년 무슨 일든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금전이익이 있다. 50년 세일즈맨은 사방팔방 분주하며 주위에서 인정한다. 62년 내 행동을 상대가 이해하니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 74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적극적 추진의욕이 필요. 86년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주변과 충돌하니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지혜 필요.

39년 재물운이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 이동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신뢰가 필요하다. 63년 연애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마라. 75년 기술과 노하우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인정을 받으며 재운이 있다. 87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0년 의욕 또는 친목에 참여하게 된다. 52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 정보력을 동원할 것. 창업 또는 개업을 할 수도 있다. 64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 있다. 76년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고 정승이 있으나 집안에서의 걱정과 불화는 별개. 88년 부모와 인연이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하는게 좋다.

41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을 자제. 53년 배우는 만큼의 결과가 있다. 65년 벌과금 또는 생각하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기 차광운전 시 조심. 77년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에 의존해야 하니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라. 89년 이상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논쟁하면 불리.

42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4년 문서관련 일이 빠르게 추진된다. 차분한 검토와 병행 실천하라. 66년 변화 변동수가 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78년 도전의식에 결과가 보답 받는 형국. 분주하고 활동하라. 9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 생각이 흐릿하니 계획을 확실시 하라.

43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55년 돈을 받거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67년 자신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바쁜 하루 외출 시 안전조심. 79년 직장이나 취업소식이 있으며 이성교제 나 소개팅은 좋지 않다. 91년 외출이나 활동할 일이 생긴다. 친구들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4년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하는 일에 전념할 것. 56년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대인관계 길다. 과음과 늦은 귀가는 삼가라. 68년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라. 마음이 편해진다. 80년 이성교제나 친구 소개 미팅이 주선된다. 92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45년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문서운 길. 57년 임무가 많아진다 기대보다 매출이어나 결과 부실하다. 69년 자금지출이나 거래가 있다. 거절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라. 81년 연애에 신중하라.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구설수를 만든다. 93년 형제간에는 연애가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

46년 자식이나 부하직원 때문에 예민해 질 수 있다. 스트레스 조심. 58년 목돈을 지출할 일이 생긴다. 품품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70년 재주를 인정받으니 자신의 경기를 발휘하라. 82년 전문업이나 자격소지자는 인정받는다. 94년 손재주, 자금지출이 있다. 분실수가 있으니 외출 시 금전관리 철저.

47년 무슨 일든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금전이익이 따른다. 59년 건강증이나 분실할 일이 생기니 물건을 잘 챙길 것. 71년 분주하나 결과가 미약하다. 본인의 직관력을 믿어라. 83년 자기 능력 배양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도 넓히면 좋다. 95년 길이 막힌듯 하다. 답답해도 인내하면 오우에 일이 해소된다.